

# 광주 17개교 공동 출판기념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도서 64종 소개 '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 주제 오늘까지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27일부터 3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주변에서 광주 관내 학생 독서·책 쓰기 동아리 공동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 여섯 번째”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출판기념회에선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17개 학생 독서·책 쓰기 동아리가 출간한 도서 64종이 소개될 예정이다. 광

다. 광주시교육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업무협약으로 구체적인 장소 후원을 이어가고 있어 학생과 협력으로 광주 문화 창조 교육에 기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전시 작품 중엔 초·중·고등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정서를 엿볼 수 있는 책들이 많다. 조정사의 꿈을 가진 학생의 학교 정원 관찰기 ‘소담정원’, 매일 떠오르는 단상들을 팔레트처럼 색깔별로 정리해 놓은 수필 모음집 ‘붉은 바다’, 사춘기 열세 세 살 아이들의 솔직하고 반전있는 동시 모음집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장소로 매일 같이 손님들을 데려다 주는 518 버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나는 518 버스입니다’ 등이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연구정보원 이머라 원장은 “책임기를 통한 배움이 이번 학생 저자들의 책 출판과 같은 책쓰기 활동으로 학생 각자의 삶 속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독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지역 학생 저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선 학생들이 직접 쓴 64권 책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북카페가 마련되고, 올해 출간된 책뿐만 아니라 그동안 책쓰기 동아리 활동의 결실로 나온 학생들의 책들도 살펴볼 수 있어 작가의 꿈을 가진 학생이나, 책쓰기 지도에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태학생장학회’ 마지막 장학금 지급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목포시 문태고등학교가 지난 27일 교내에서 문태학생장학회의 마지막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9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과 장학생의 학부모, 문태학생장학회 임원과 교직원, 용당2동장이 참석했다.

문태나눔프로젝트 ‘문태학생장학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용돈을 아껴 매월 1회 자발적으로 기금 마련에 나선 후 가정환경이 어려운

된 장학 기금이 십시일반 모여 인근 지역 초·중학교(목포용호초, 목포이로초, 문태중, 목포제일중, 목포영화중) 장학생 10명(학교당 2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증서도 함께 수여해왔다.

문태고 채종규 학생회장은 “우리가 쓰는 용돈을 천원, 이천원 아껴서 이웃의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보람찼다.”며,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 지역사회를 돕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태학생장학회를 지도해온 이명주 교사는 “올해로 어느덧 마지막이 된 학생 장학회 사업, 기분이 참 묘하다.”며, “우리 학생들이 학생장학회의 가치와 비전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학생장학회로 전교생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오고 있다.

문태학생장학회는 지난 2011년부터 목포시 용당2동 주민센터(동장 하점택)와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날 마지막 장학금 지급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1구좌 1,000~2,000원으로 모금

## 광주시교육청, ‘고3 수험생을 위한 찾아가는 역사교육’

### 다큐 ‘나고야의 바보들’ 관람 및 감독과 대화



광주시교육청이 ‘고3 수험생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일 광주인성고등학교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오는 12월 13일까지 총 8개 고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임용철 감독을 초청해 ‘나고야의 바보들’ 영화 제작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화를 관람한 후 감독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고야의 바보들’은 임용철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일본 ‘나고야 미쓰키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

임 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활동한 20여년의 세월을 담은 영화이다. 임 감독은 “누군가는 기록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어느덧 10년이 되었다.”며 “앞으로 대학교 또는 사회에 진출하게 될 고3 학생들과 함께 일본의 강제 징용 문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난과 이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설레고 기대된

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고3 수험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나주교육지원청, 초·중 전남 독서토론대회 ‘석권’



나주교육지원청이 ‘2019. 전남 초등 독서토론대회 한마당’ 대상 빛누리초등학교, ‘제8회 전라남도 중학생 토론대회’ 금상 빛가람중학교, 은상 나주금천중학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 한 해 생각을 키우는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활성화에 지속적인 지원을 한 결과이다.

나주교육지원청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한 학기 한 권’ 책임기와 학교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 독서교육에 주력했다. 또, 토론수업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독서·토론 수업 전개와 관내 독서·토론 동아리 27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쓰기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중 글쓰기 교육 생활화에 중점을 두며 교원 독서능력 향상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며 독서·토론 수업 컨설팅을 지원했다.

김영길 교육장은 “미래사회에는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업능력,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한 문화예술 접근성 높여

### 보성 다향고, 도·농 문화적 격차 해소



보성군 다향고등학교는 ‘전남도 교육청의 창의인성 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다향고등학교는 매력적인 직업 계고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체험의 날, 김위의 인문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소의를 극복하며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예술적 상상과 체험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제과·제빵과) 학생은 “평소 관심이 많았고 즐겨 듣던 노래를 듣게 되어서 매우 좋았다. 문화체험의 날, 김위의 인문학 프로그램과 더불어 예술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아서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공연을 운영하여서 다수의 학생들의 공연 만족도가 높았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선경 교장은 “매직사업과 더불어 우리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향고등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부사관과(1학급)와 제과·제빵과(1학급)로 학과개편을 통해 미래 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보성=인구일 기자

